“오늘보다 더 강한 내일 위해 노력하겠다”

●육군 제31보병사단 창설 69주년

1955년 2월 화천군서 창설 후 2개월 지나 광주시로 이동

광주·전남 수호 지역방위사단 ‘뿌리’…대통령 표창 ‘최다’

광주·전남 지역방위사단인 육군 제31보병사단이 올해 창설 69주년을 맞았다. 사단장 이일용 소장(맨 앞)이 최근 열린 창설기념식에서 장병들과 함께 경례하고 있다.

“사단 창설 69주년을 맞아 어제보다 더 강한 오늘, 오늘보다 더 강한 내일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광주·전남 지역방위사단인 육군 제31보병사단(사단장 이일용 소장)이 창설 69주년을 맞아 최근 창설기념식을 거행했다.

4일 31사단에 따르면 부대는 1995년 2월20일 화천에서 창설된 후 같은 해 4월5일 현 위치인 광주시로 이동했다.

창설일은 2월20일이지만, 창설 기념행사를 4월5일이 있는 주간에 갖는 것은 광주로 이동해 지역방위사단으로 뿌리 내린 것을 의미 있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일에는 장병들과 함께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단결 활동을 진행한다.

사단의 애칭인 ‘충장부대’도 임진왜란 당시 광주 출신의 의병장이자 전국 8도 의병의 총수로 활약했던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호국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989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예비병 교육과 전방부대 병력 충원’을 목적으로 창설된 사단은 지난 69년 동안 발전을 거듭, 현재 육군에서 가장 긴 3천293㎞의 해안선 경계작전을 펼치며 15만 광주·전남 예비군의 동원즉응태세 확립에 힘쓰고 있다.

이 외에도 사단은 지난 1998년 여수·임포지역으로 침투한 북한군의 반잠수정을 지·해·공 합동작전으로 격침시킨 것을 비롯해 열다섯 차례의 대침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3년 나로호 발사,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지역의 국가급·국제 행사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

또한 창설 초기 지역민을 위한 농번기 대민지원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지난 69년 동안 태풍과 수해, 폭설, 화재, 가뭄, AI·구제역, 코로나19 방역지원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각종 재해로 실의에 빠질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말보다 행동으로 그 아픔을 보듬어 왔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노고를 인정받아 사단은 지난해 ‘한국형발사체 2차 발사 경계작전지원 유공’ 대통령 부대표창을 비롯, 총 25회의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하는 등 ‘전군 최다 대통령 부대표창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방위사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일용 31사단장은 “창설 69주년을 맞아 어제보다 더 강한 오늘, 오늘보다 더 강한 내일을 위해 충장부대 비전과 목표를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가자”며 “충장부대 전우 모두가 서로를 믿고 가족같이 사랑할 때 모든 일을 이뤄낼 수 있으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강하고 스마트한 최정예 충장부대’로 우뚝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재영 기자

김영록 지사, ‘대한민국 최고 경영대상’ 리더십 대상

김영록 전남지사가 소통과 혁신의 탁월한 리더십을 인정받아 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최고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리더십경영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최고 경영대상’은 뛰어난 전략과 과감한 도전으로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낸 기관과 기업 등을 선정해 공로를 치하하는 상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국체전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메가이벤트의 역대급 성공을 이끌고, 우주발사체 특화 국가산단 지정과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등 지역의 미래 100년을 견인할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매월 실시하는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역대 최장인 50개월 1위를 기록하는 등 탁월한 리더십이 돋보여 수상 영예를 안았다.

김영록 지사는 “한결같이 도정을 성원해준 200만 도민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며 “도민제일주의 신념을 바탕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빛나는 지방시대 1번지, 전남’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정 기자

화인데코 ‘광주 나눔명문기업 16호’ 가입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광주사랑의열매)는 4일 “지난 2일 ㈜화인데코가 1억원을 기부하며 ‘나눔명문기업 광주 16호’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가입식에는 박철홍 광주사랑의열매 회장, 이상철 ㈜화인데코 대표, 이형섭 ㈜화인데코 부장, 김진곤 광주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철 ㈜화인데코 대표는 “이번 가입식을 계기로 더욱더 돌봄이웃들을 위해 필요한 곳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철홍 광주사랑의열매 회장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화인데코에 감사드린다”며 “사랑의열매도 나눔이 넘치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성학기자

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 북항 일대서 안전 캠페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4일 “봄철 낚시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 등을 위해 목포 북항 일대에서 해양사고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해양안전특별대책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공단 전체 지사 중 관할 선박수(10만169척)가 가장 많은 목포지사에서 실시됐다.

공단은 특별대책본부 운영 기간 어선별 어획물 적재 가이드와 팽창식 구명조끼, 소화기 등 안전 물품을 나홀로 조업어선 등 안전 취약 선박 대상으로 집중 보급하고 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어업인과 여객선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조업하고 여객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한빛원자력본부 ‘옥당골 행복 만들기’ 지원 협약

한빛원자력본부는 “최근 한빛에너지팜에서 영광효사랑노인복지센터와 ‘옥당골 행복 만들기’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옥당골 행복 만들기’는 영광군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족욕, 마사지, 이·미용 서비스, 노래교실, 식사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부는 올해 영광군 경로당 120개소로 확대 시행하며 이를 위해 영광효사랑노인복지센터에 약 1억7천만원을 지원했다.

최헌규 한빛원자력본부장은 “지난해 7개 읍면을 추가 선정해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담양 봉산면 지사협, 거동불편 가구 이불세탁 봉사

담양군 봉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관내 거동이 불편한 50가구의 겨울 이불을 세탁했다”고 4일 밝혔다.

진철 봉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불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방문해 직접 이불을 수거하고 전문세탁업체에서 세탁 및 건조 후 집까지 배달했다”며 “더불어 각 가정의 안부를 확인하고 김신행 봉산면사무소 복지팀장 등과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김창회 쌍교숯불갈비 대표의 후원금 1천만원 중 일부를 사용해 이뤄졌다.

구미형 공동위원장은 “이번 사업으로 거동불편 가구가 조금이나마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나주 남평파출소,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나주 남평파출소는 4일 “남평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남평초등학교 교직원 학생 등 50명과 함께 진행했다.

윤육성 남평파출소장은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의 교통 안전은 우리의 의무이며, 안전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전남농기원, 농업인 대상 응급처치 교육

전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농작업과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교육을 기계화영농사반 교육생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처 처리 방법, 심한 충격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농작업과 일상생활 속 안전을 위한 예방법 등에 대해 전문 강사의 지도에 따라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김재천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장은 “농작업이 많아지는 시기를 앞두고 다양한 현장의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GS칼텍스 여수공장, 봄맞이 정화활동

GS칼텍스㈜ 여수공장은 “최근 여수국가산단 인근 지역 신덕마을과 해수욕장 일원에서 봄맞이 정화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GS칼텍스 여수공장 직원 30여명이 참여했으며, 마을길과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준호 삼일동장은 “바쁜 와중에 마을정화 활동에 참여해준 GS칼텍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동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영암 시종파출소 ‘이륜차 사고 예방’ 협약

영암 시종파출소는 4일 “전날 영암 낭주농협, 월출산농협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모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는 관내 이륜차 교통 사망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륜차·경운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 안전용품 지원·홍보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시종파출소는 영암 낭주농협, 월출산농협으로부터 이륜차 안전모 140개를 전달받았으며 고령 운전자에게 ‘이륜차 운행 시 안전모를 상시 착용할 것’이라는 서약을 받고 안전모를 지급하기로 했다.

김선명 시종파출소장은 “노인 인구 비율이 50%나 차지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치사율이 높은 이륜차·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결혼

▲김경윤(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이태복씨 장남 태홍(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군, 노수근·이명자씨 장녀 지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양=28일(일) 낮 12시30분 센트럴광주호텔&레지던스 파레스가든홀(010-4541-2580).

▲박상훈·김영숙씨 장남 준성군, 이태일·김정숙씨 장녀 은지양=27일(토) 오전 11시 광주 까사디루체 1층 루체홀(062-710-4000).

부음

▲이맹수씨 별세, 이병노(담양군수)씨 부친상=발인 7일(일) 낮 12시 담양제일장례식장 202호(061-382-1111).